

'멜로 장인' 정해인, 살인마 잡는 '불사신 추격자'로 변신

정해인은 군대 운전병(병장) 시절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다 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서 죽음의 고비를 맞았다. 당시 뒤에서 덩크트럭이 가까이 따라붙었는데 가까스로 핸들을 갖길로 틀어 큰 사고를 면했다. 이후 '늘 이 순간에 충실하자'로 좌우명을 삼고 있다.

충실함의 대표 배우 정해인은 수능 시험을 치르고 영화를 보고 나오다 모델 에이전시 관계자에게 명함을 받고 연예인 꿈을 키웠다.

2013년 아이돌그룹 AOA의 유닛 AOA 블랙의 뮤직비디오 'MOYA'에 출연하며 모습을 드러냈고 2014년 TV조선 드라마 '백년의 신부'에서 조연으로 데뷔했다. 극 중 뛰어난 비주얼의 아이돌 가수 최강인 역을 맡아 여성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외에 드라마 '삼총사' '블러드' '그레, 그런거야' '불야성' '당신이 잠든 사이에'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에서 조·주연을 넘나



효성빌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64

들었다.

본격적으로 대중의 눈도장을 받은 작품은 2016년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도깨비)다. 여주인공 지은탁의 첫사랑인 대학 야구부 선수 최태희 역을 맡아 짧은 출연에도 잘 생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후 2018년 JTBC 드라마 '밤 잘 사 주는 예쁜 누나'로 '국민 연하남' '멜로 장인'에 등극했다. 극 중 손예진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현실 연애를 생생하게 담아 존재감을 입증하고 스타덤에 올라 전성시대를 열었다.

2019년 방영된 MBC 드라마 '봄밤'에서도 '멜로 장인'이란 수식어를 입증했다. 약사 유지호 역을 맡아 배우 한지민과 달콤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여 MBC 연기대상 수목드라마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그해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또한 개봉 첫날부터 7년 만의 한국 멜로 영화 오프닝 신기록을 세우며 제56회 대중상 영화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이외에 드라마 '반의반' 'D.P.' '설강화: snowdrop' 등과 영화 '레디액션 청춘' '서울의 달' '역곡: 반란의 시대' '흥부: 글로세상을 바꾼 자' '시동' '언프리티드'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고가며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특히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가 됐다. 김보통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으로 대한민국의 보통 청년처럼 군복무를 시작한 이등병 준호를 맡아 어느 날 갑자기 '군무이탈 체포조'가 돼 탈영병들을 쫓으며 맞는 현실을 그렸다.

복서에 어울리는 근육질과 태닝을 통한 피부 색 변화 등 비주얼뿐만 아니라 트레이드마크인 부드러운 눈웃음의 카리스마 눈빛, 180도 달라진 연기로 호평을 받았으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한편 정해인이 7일 공개를 앞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커넥트'로 돌아온다. 신선한 콘셉트와 촘촘한 스토리, 독창적인 비주얼로 신대성 작가의 동명 웹툰 '커넥트'를 기반으로 장르 영화의 대가로 손꼽히는 일본 미야케 타카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한일 합작 프로젝트다.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새로운 인류인 '커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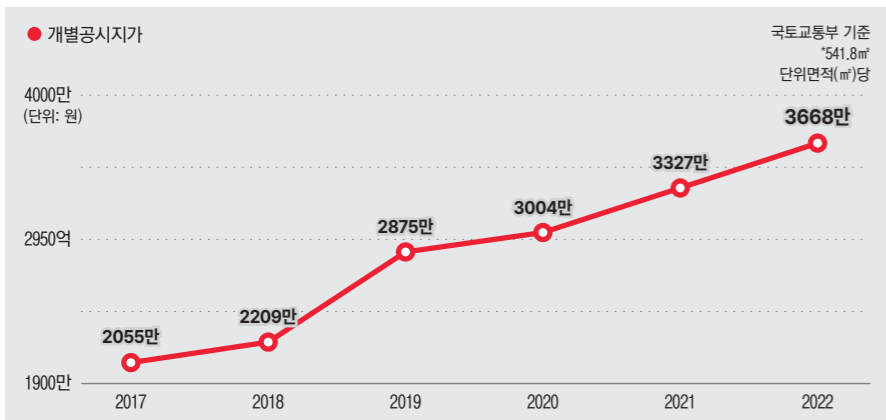
배우 정해인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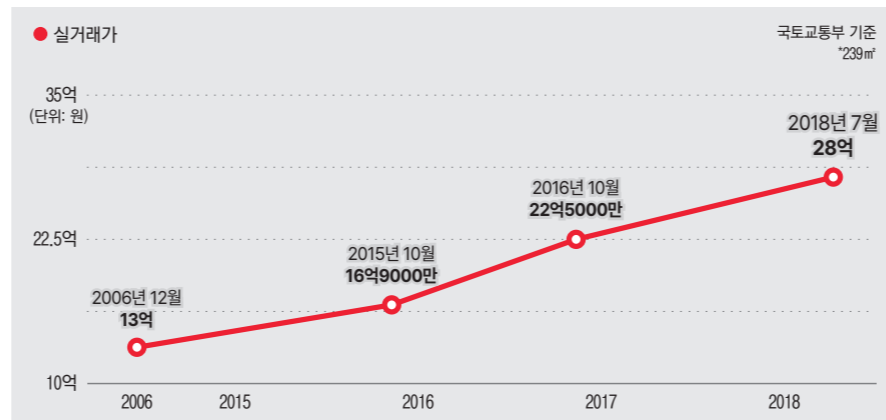
트 동수가 장기밀매 조직에게 납치당해 한쪽 눈을 빼앗긴 뒤 자신의 눈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마에게 이식됐음을 알고 그를 쫓는 불사의 추격을 담았다. 가장 과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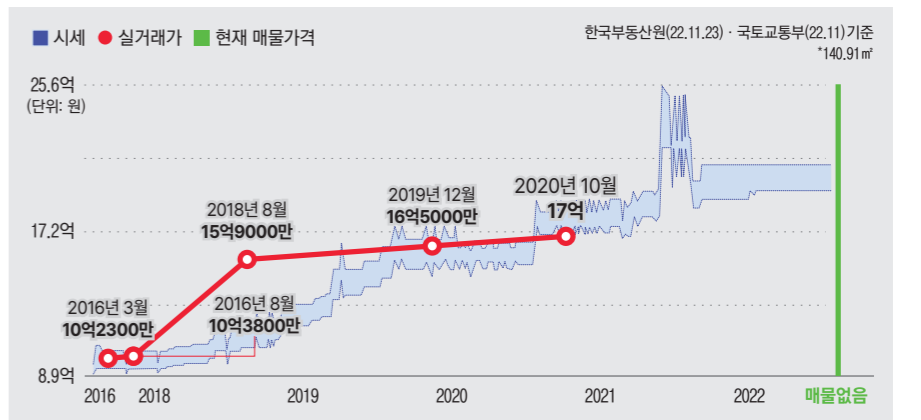
청담퀵리움505



신동아빌라드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하문명

현)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급



하문명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급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공공경제학을 전공했다. 1990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체육부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이후 오피니언팀장, 교육생활부와 국제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국내 언론 사상 첫 여성 시경 캡(사회부 사건기자팀장)을 올랐으며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참언론대상, 한국기자상, 삼성언론상, 서재필언론상, 일한교류기금상, 양성평등미디어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김치하와 그의 시대', '송산 르스남 평전 삶의 나침반' 등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제사상가 이진



희'를 출간했다. 고(故) 이진희 삼성그룹 회장의 1주기를 맞아 고인과 가까이 일했던 전직 삼성맨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으며 고인이 남긴 에세이집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중 일부분을 발췌해 고인의 사상과 철학을 담았다.

신희택

전)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신희택 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자문과 국제중재 사건 등을 맡았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일본 기업이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간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에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재판장에 해당하는 의장 중재인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국제 분야 법정 변호



사 사무실인 트윈티 에식스(Twenty Essex)에 유일한 아시아계 중재인으로 합류했다.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초대 의장을 맡아 국제중재사건의 유치와 해결 등 발전을 꾀했다.

신형근

전)히로시마총영사관 총영사



신형근 전 히로시마총영사관 총영사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 외무부에 입부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중국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며 친다오와 선양에서 총영사를 지냈다. 선양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 등 두 편의 대형 음악프로그램을 유치했으며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경제인대회를 처음으로 국외에서 개최하는 성과를 냈다. 덴마크 대사관 2등서기관, 북경대사관 1등서기관, 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브라질대사관 참사관, 친다오총영사관 총영사 등을 지냈다. 2011년 히로시마 총영사로 부임해 주고

쿠지방 5개현과 교류 촉진, 제일 한국인 지원 등에 노력했다. 선진은 한 국원폭파해자협회 회장을 지낸 고(故) 신영수 씨로 피폭자운동을 통해 핵무기 근절로 이어간다는 아버지의 신념을 이어 진정한 친선관계 구축과 피폭자의 시민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신천~신림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위해 4개 지자체 협력

경기도

경기도는 '신천~신림선'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개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고 수도권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 서울시 금천구와 관악구 등 4개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4명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천~신림선 광역철도 사업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영기 관악구청장, 문정복(시흥시 갑)·양기대(광명시 을)·최기상(금천구)·정태호(관악구 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 신천동에서 출발해 광명시 하안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거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신천~신림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



신천~신림선 사업추진 공동협약식.

경기도

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신천~신림선'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최적노선 대안 도

출을 위해 관련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나성동 복합주민공동시설 준공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나성동에 청소년 특화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준공돼 세종시에 시설을 이관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 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했으며 부지면적 6781㎡, 연면적 1만 242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다중적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2~4생활권내 주민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내부 시설은 △주민센터·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문화의집·방학형 문화관람실 △청소년 특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조성했다.

1층 문화관람실과 2층 영유아열람실 및 어린이열람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 개방감을 확보했고 3층에는 노인문화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터를 마련해 전체 연령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겠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및 가상현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대공간을 마련했다.

김은영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나성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행복도시 내 다섯 번째 준공 시설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 교육 공간을 제공해 미래 교육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